

“광주 문화관광 살리자”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20일 ‘광주문화관광포럼’ 오웬기념각서 공개 토론회 발산마을 사례 등 비전 모색

광주의 도시문화와 광주권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회의가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관광업계 및 MICE·문화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문화관광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가 아닌 근대문화유적지에서 개최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올해 49회째를 맞이하는 광주문화관광포럼은 기존 조찬세미나 형식에서 오후에 다과와 함께 개최되는 관광 특화 포럼으로 개편해 공개특강, 관광 유관기관 현안토의 등 새로운 포맷으로 출발한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광주 After TEA’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열린다. TEA는 Tourism(관광시장)·Environment(지역관광환경)·Alliance(지역관광협의체)라는 뜻을 지닌 약어로,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광주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 업계 토의의 장으로 다과(tea)와 작은

공연을 즐기면서 진행되는 문화관광분야 지역특화 포럼이다. 기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던 포럼을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크메뉴(고유 스토리와 함께 연회·특색 있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 명소)인 오웬기념각(광주시 유형문화재 제 26호)에서 개최함으로써 근대 역사유적지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 1회 포럼 특강 주제는 ▲양동발산 창조문화마을 도심재생프로젝트를 통한 문화관광도시로서 광주시의 비전 ▲대청호 오백리길 사례를 통한 광주 도시관광의 시사점 ▲제 6차 광주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

른 광주관광의 융복합 과제와 정책방향 등의 내용의 강연으로 구성되며, 2부에는 지역 관광발전 방향성 수립을 위한 MICE·관광 유관기관 토론회로 진행된다. 광주문화관광포럼은 정기적으로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관광 동향과 관광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함으로써 광주 관광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16 광주문화관광포럼(에프터티 포럼)은 6월 20일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9월, 11월 총 3회에 걸쳐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서지 위생 불량 꼼짝 마

광주시, 내달 8일까지 단속

광주시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까지 5개반 21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 공무원 11)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총 404곳의 위생을 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점객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도 수거해 검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카자흐스탄 대학생 이브라힘 다우르베코브(23·Ibrahim Daurbekov·오른쪽)씨와 굴라이옴 누르만(21·Gulaiym Nurman)씨가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시청 잔디광장서 도시 캠핑·문화공연 즐기세요...24일부터 여름 문화캠프

여름방 광주시청사 앞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이 시민을 위한 공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8월까지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여름 문화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24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예약제로 매주 금·토요일에 텐트 5동을 제공한다. 8월에는 텐트 10동과 문화공연, 가족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평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소나무숲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청사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어린이 자전거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에도 10일간 시청사를 가족캠핑장으로 개방한 바 있다.

다만, 전문 아영장이 아닌 만큼 완벽한 부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휴대용버너를 이용한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지만 화재 위험이 높은 숯, 매향, 번개탄 등 사용과 식기세척은 금지된다. 6~7월 사용 신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텐트를 직접 가지고 와서 평일과 주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이용객

안내와 응급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반을 편성, 시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용 문의는 광주시 회계과 청사 관리팀(062-613-3194)으로 하면 된다. 김진수 광주시 회계과장은 “지난해 행사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운영기로 했다”며 “가족과 함께 시청을 방문해 무더위를 떨치고 휴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r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자원봉사자 300명 모집

광주시 동구가 오는 9월 6일까지 ‘제13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동구는 ▲일반(급수, 안내·질서유지·홍보 도우미) ▲통역(영어, 일어, 중국어, 수화, 기타) 등 2개 분야에 모두 3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안내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거나 외국인 안내 통역이 가능하면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동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2-228-1365) 또는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www.1365.go.kr)로 하면 된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9월 중 교육 및 발대식을 거쳐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제13회 총장축제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는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술소풍 프로그램 ‘아트피크닉’이 무더위로 인해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로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아트피크닉 시즌2’는 광주시립미술관 앞 잔디광장에서 오는 18일~8월20일 첫째·세째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연다. 지난 11일 아트피크닉에 참여한 학부모와 아들이 악기 소리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카자흐스탄 대학생 4박5일 광주체험

청연의료재단, 한의약 홍보 사업

청연의료재단(이사장 박진우)은 최근 4박5일간 카자흐스탄 대학생 2명을 초청해 한의학과 더불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카자흐스탄 한의약 홍보 사업에 청연의료재단이 선정되면서 한

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항공료 등 모든 비용은 청연의료재단이 부담했다. 이들은 체류기간 동안 전주국립박물관과 한옥마을, 여수 해상케이블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후문 대학로 청년거리로 거듭난다

내달부터 골목길 문화공간 조성

전남대 후문 대학로 일대가 청년문화의 거리로 바뀐다. 14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주민 보행권 확보와 청년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남대 후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전남대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는 모두 21억원이 투입된다. 북구는 전남대 후문 대학로 주변 상가지구와 주거지역, 도로 등에 차광속도 저감 시설,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생활도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버스킹 스팟, 골목길 특화사업 등 젊음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청년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남대 후문 대학로가 안전성을 겸비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보행환경개선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숙박 (무인텔/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은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 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010-3605-5000

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 분!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교육비 1200만원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